

CJ올리브영 '홀리데이 기프트 파티 기획전'

CJ올리브영이 26일까지 공식 온라인몰에서 '홀리데이 기프트 파티 기획전'을 실시한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선물 수요를 겨냥했다. 프리미엄, 스페셜 뷰티, 연말 파티를 키워드로 200여 개 선물 추천 상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다.



농심 "미래 新성장동력은 대체육"

대체육 전문 브랜드 확장·비건 레스토랑 오픈

건강 관심 높아지며 채식 인구 늘어 식물성 재료로 만든 떡갈비 등 선풍적 인기. 고기의 맛과 식감 그대로 구현 '베지가든 레스토랑' 내년 오픈 예정



신동현 회장

7월 1일 취임한 신동현 회장이 이끄는 농심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대체육 사업을 꺼내 들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채식 인구가 늘고, 친환경과 가치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트렌드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비건 브랜드 중 가장 폭넓은 제품군

신 회장은 취임사에서 "식품산업에서 얻은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상품군 확장에 속도를 낼 것"을 강조했다. 신 회장이 꼽은 주요 신사업이 대체육 브랜드 '베지가든'이다. 농심 연구소와 농심그룹 계열사인 태경농산이 개발한 식물성 대체육 제조기술을 간편식품에 접목한 브랜드다.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떡갈비, 너비아니 구이, 만두 등으로 구성했다. 대체육 제조기술 중 진보한 공법으로 꼽히는 고수분 대체육 제조기술로 실제 고기와 유사한 맛과 식감은 물론 고기 특유의 육즙까지 그대로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조리냉동식품, 즉석 편입식, 소스, 양념, 치즈 등 국내 비건 브랜드 중 가장 폭넓은 제품군을 자랑한다.

내년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 100% 식물성 재료로 만든 음식만을 제공하는 비건 레스토랑을 운영한다. 내년 4월 서울



농심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대체육 사업을 내세웠다. 베지가든 제품군(왼쪽)과 내년 4월 오픈하는 베지가든 레스토랑의 시그니처 메뉴인 리가토니 라구. 사진제공 | 농심

잠실 롯데월드몰 6층 전문식당가에 '베지가든 레스토랑'을 오픈할 계획이다. 그간 베지가든 제품을 만들며 쌓아온 노하우를 활용해 전문 셰프와 함께 개발한 메뉴를 선보일 방침이다. 베지가든을 활용해 개발한 애플타이저, 플래터, 버거, 스테이크, 파스타, 사이드메뉴, 디저트 등 총 20여 개 메뉴를 새롭게 선보인다. 시그니처 메뉴는 치즈 풍류 플래터, 리가토니 라구, 가지 라자냐, 멕시칸 타코 랩, 더블치즈 아보카도 버거 등이다. 회사 측은 "기존 개인이 운영하는 비건 레스토랑은 식재료의 수급과 신메뉴 개발의 한계점이 있었지만 베지가든 레스토랑은 원재료부터 요리까지 모두 농심이 직접 만들기에 보다 다양한 메뉴를 제대로 선보일 수 있다"고 했다.

●친환경·가치소비 트렌드의 영향

그렇다면 농심이 대체육 사업에 도전하는 이유는 뭘까. 먼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채식 인구의 꾸준한 증가

를 고려했다. 한국채식비건협회에 따르면 국내 채식 인구는 2008년 15만 명에서 올해 250만 명으로 급증했다. 이와 함께 때때로 채식을 하는 간헐적 채식주의자(플렉시테리언)도 증가하며 올해 국내 대체육 시장 규모는 전년 대비 약 35% 성장한 15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전 세계적 트렌드가 된 ESG 경영과도 연관이 있다. 대체육 시장의 성장에 주도하고 있는 대체 단백질은 대규모 동물 사육 없이 혁신 기술로 단백질을 구현하는 만큼 가족을 키우며 발생하는 탄소 배출을 줄여 친환경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가치소비를 중시 여기는 2030 MZ세대가 주요 소비계층으로 자리 잡은 영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이들의 소비트렌드는 일명 '미닝아웃'으로 대표된다. 신념을 뜻하는 미닝(Meaning)과 '벽장 속에서 나오다'라는 뜻의 커밍아웃(Comingout)을 결합한 신조어로 사

회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소비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대체육 소비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도 대체육 산업의 미래를 밝게 전망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세계 대체육 시장 규모는 2015년 4조2400억 원에서 올해 6조 1900억 원으로 커졌으며, 2023년에는 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국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대체육이 2030년 전 세계 육류 시장의 30%를, 2040년에는 60% 이상을 차지해 기존 육류 시장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회사 측은 "대체육 시장의 성장과 함께 베지가든 레스토랑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질 것"이라며 "베지가든 레스토랑이 대체육에 대해 차별화된 맛과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맛있고 품질 좋은 메뉴를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ay@donga.com

최현만 회장, '자본시장 올해의 인물' 선정 금융투자업 발전과 궤를 함께한 인물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사진)이 '자본시장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

'자본시장 올해의 인물'은 한국거래소가 자본시장 관심 제고와 투자자 저변 확대를 위해 올해 처음 제정한 상이다. 한국 자본시장의 발전과 건전한 투자문화 확산에 기여한 개인이 시상 대상이다. 회원사, 한국거래소 출입기자단과 직원의 추천 등을 거쳐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한 일반투자자 투표로 선정했다.

최 회장은 올해 최대 공모금액을 기록한 크래프톤의 기업공개(IPO)를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등 신규상장 기업 수 21개를 기록한 IPO 주관 실적 1위의 증권사 CEO로서 한국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자 저변 확대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25년간 미래에셋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증권, 자산운용, 생명, 캐피탈 등의 최고경영자(CEO)를 두루 역임하는 등 국내 금융투자업의 발전과 궤를 함께한 인물로, 6일 전문경영인 최초로 증권사 회장에 오르는 등 향후 한국 자본시장에서의 역할이 주목되는 인물로 평가됐다. 시상식은 올해 한국 자본시장의 마감을 기념하는 30일 증권·파생상품시장 폐장식에서 열린다.

제주드림타워 "개장 후 1년간 130만 명 방문"



18일 개관 1주년을 맞은 복합리조트 제주드림타워(사진)는 1년 동안 130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제주드림타워를 운영하는 롯데관광개발에 따르면 38층 '포차'를 비롯한 14개 식음업장이 1년

간 77만 명의 방문객을 기록했고, 8층 야외 풀데크도 5월 이후 7개월간 11만2000명이 찾았다. 11월 29일 두 번째 타워(850실) 오픈 이후에는 주말 1100실까지 예약이 이루어지는 등 국내 단일 호텔로는 처음으로 객실 1000실 시대를 열었다. 또한 롯데관광개발은 개관 1주년을 기념해 CJ온스타일 방송에서 총 6503실을 판매하는 등 지금까지 휴쇼 핏 및 이커머스 등을 통한 누적판매 10만 220실을 기록했다.



서울관광재단, 인터넷에코어워드에서 최고 대상

서울관광재단은 '인터넷에코어워드 2021'에서 3D 가상행사 플랫폼 '버추얼 서울(사진)'의 공공 배포 성과로 최고 대상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받았다. 서울관광재단은 11월 3D 가상행사 플랫폼 '버추얼 서울'을 2.0 버전으로 리뉴얼 론칭했다. 기존의 e-콘퍼런스 송출에 더해 가상전시, PSA(1대1 비즈니스 상담) 등의 기능을 추가했다. 또한 콘텐츠 관리 시스템(CMS)을 함께 구축하여 행사 주최자가 비용 없이 직접 플랫폼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도록 했다.

강원랜드, 지역 자영업·소상공인 위해 '착한 선결제' 진행

부서지원비 3억5000만원 선결제 방역조치 완화되면 캠페인 진행

강원랜드(대표 이삼걸)는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약 3억5000만 원의 부서지원비를 지역 상권에 선결제한다.

강원랜드는 11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부서별 지원비를 30% 늘려서 지역 상가나 업체에서 추가 사용하기로 결정했

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사적모임 규제가 실행되면서 회식이 줄거나 취소돼 접혀 있던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웠다.

이에 강원랜드는 20일부터 부서지원비를 연말까지 지역시장과 음식점 등 상가에서 선결제하고 이후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시점에 사용하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삼걸 강원랜드 대표는 우선적으로 지역 상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12월에 한해 한

시적으로 예산 선결제를 허용하는 결단을 내렸다.

이삼걸 대표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폐경기 상인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다"며 "모두 힘든 시기이지만 어려움을 때일수록 나누며 살아온 오랜 미덕이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랜드는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들을 돕기 위해 결제 대금의 최대 80%를 선금으로



강원랜드 하이원리조트 마운틴 팜.

지급하고 있다. 또한 강원랜드 희망재단을 통해 지역 영세식당을 지원하는 재할 프로젝트 '정·태·영·삼 맛캐드'도 2017년부터 진행해 현재 19호점을 오픈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파리바게뜨, 배민과 '산타 딜리버리' 사회공헌활동

성탄 케이크 등 어린이들에게 전달

SPC그룹 파리바게뜨와 배달의민족이 21일 파리바게뜨 서울 명동점에서 '산타 딜리버리' 사회공헌활동(사진)을 진행했다.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산타' 이미지를 구현해 어린이에게 직접 선물을 전하는 2030 MZ세대

직원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으며, 배달의민족에 협업을 제안해 성사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날 배민라이더 20여 명이 오토바이를 탄 산타가 돼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비롯한 간식 빵, 크리스마스 파티 굿즈 등의 선물 꾸러미와 카드를 100여 명의 아동복지기관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며 따뜻한 추억을 선사했다.



회사 측은 "어린이에게 따뜻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고자 기획한 행사인 만큼, 어린이들에게 소중한 추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정정욱 기자

광동제약, 안전경영책임자에 박상영 부사장 임명

광동제약은 박상영 부사장을 내년 1월 1일부로 신설하는 최고안전경영책임자(CSEO/CEO)로 임명했다. 박상영 부사장은 CSEO와 함께 커뮤니케이션실 소관인 언론, 법무, 감사업무도 겸직한다. 이와 함께 경영지원실장에 비서팀장으로서 임원으로 승진한 이상일 상무이사, 의약품품질부문장은 이길호 상무이사, 의약품생산부문장은 양용만 상무이사를 각각 발령했다. 삼다수사업부문장 기준도 상무이사는 온라인영업부문을 겸직한다.